

# 김생의 서예와 그 집자비의 문제

정 세 근(충북대 철학과)

## 목차

1. 김생과 충주
  2. 기록들
  3. 금석학과 서예사
  4. 김생사지
  5. 오류의 문제
  6. 한국의 서예
- 부록

### 1. 김생과 충주

충주의 역사와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한국의 대표적인 명필 가운데 하나인 신라승 김생(金生)이다. 이렇듯 김생은 한국서예사의 대부이다. 이에 걸맞게 충주지역에서는 김생과 관련된 유적지를 발굴, 정비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연구를 진척시키고 있다. 이 글은 ‘충주지역의 역사와 문화연구’의 일환으로 중원문화의 핵심인물 가운데 하나인 김생과 그의 유적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생 이전에도 고구려 광개토왕비와 같은 명작이 남아있지만 글씨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일회적으로 끝나버려 역사적으로 개념화시키기 쉽지 않다. 그러나 김생은 『삼국사기』에 분명히 ‘열전’(列傳)으로 남아 있어 실명인으로는 최고(最古)가 된다. 그런 점에서 김생과 그의 서예에 대한 연구는 역사성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래와 같은 이야기들이 전한다. 김생은 주로 왕희지의 필법을 계발하여 해서, 행서, 초서에 능했다고 한다. 그리고 고려학사 홍관(洪灌)이 송(宋) 나라에 가서 김생의 글씨를 보이자 왕희지의 진적(眞跡)으로 오해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같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김생의 글씨가 왕희체를 모본으로 하고 있음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김생과 왕희지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미학적 판단이 요청되기도 한다.

이렇듯 김생은 한국서예사의 서두를 장식하는 인물이자, 한국의 서예가 중국과 맞먹을 수 있음을 보여준 인물이다. 그에 대한 연구는 곧 서예학에 대한 연구의 시작을 가리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사 속에 남아 있는 김생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와 충주지역에 남아있는 그의 유적에 대한 연

구는 필수불가결하다.

충주에는 김생사지(金生寺址)가 남아있고, 그곳과 충주실내체육관 앞에 ‘집자비’(集字碑)가의 세워져있다. 달리 말하자면, 김생은 그만큼 충주지역의 문화를 대표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김생사지의 집자비는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설명이 새겨져 있다. 유허비문(遺墟碑文)은 ‘동국진체(東國眞體)는 김생을 아버지[宗]로 삼는데, 오늘날 진적이 전하지 않는다’는 구절을 적고 있다. 그 때 출처로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의 ‘필결’(筆訣)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광사의 작품은 『서결』(書訣)이며, 『필결』은 성호(星湖) 이익(李翼)의 형인 이서(李澈)의 책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 까닭이 단순한 오류인지, 아니면 저자의 고의성이 있는지는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문장은 간송미술관장인 최완수씨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2. 기록들

나는 충북학연구소와 함께 충북의 예술을 소개하면서, 역사 속에 드러난 김생에 대한 김생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이인로는 『과한집』에서 김생의 글씨는 57종의 체세(體勢)를 뛰어넘었다 하고, 이규보는 『동국이상국집』에서 역사 속의 서예가 4인(神品四賢) 가운데 으뜸으로 꼽았으며, 원의 조맹부조차 「창림사(昌林寺)비 발문」에서 김생의 글이 당나라의 명각보다 뛰어나다고 했다. 서거정의 『필원잡기』, 성현의 『용재총화』에서도 비슷한 글이 나오며, 조선말의 명필인 원교 이광사도 『서결』(書訣)에서 동국필체는 김생을 아버지(宗)로 하는데, 오늘날 진적(眞跡)이 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광사에게 왕희지의 <낙의론>을 보여주기도 했던 옥동 이서는 『필결』(筆訣)에서 비록 김생이 왕희지의 아들 현지처럼 지나친 데가 있다(僻/詭)고 낮추어보지만 역사 속에서는 제일(第一)이라고 말하기도 한다.”<sup>1)</sup>

이렇듯 한국의 서예사는 김생을 빼놓고는 적을 수 없다. 이인로, 이규보, 서거정, 성현, 이광사, 이사 등의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들이 김생을 차례로 상찬(賞讚)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과연 김생의 서예가 왕희지의 수준에 머물렀을까?

“왕희지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진적이 남아있지 않아 최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청대 금석가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김생의 글씨는 고려초 화상 단목(端目)에 의해 비의 형태로 집자(集字)되어 남아있으니(954년의 <朗空大師白月栖雲塔碑>, 화엄사 석경편 등) 참조할 만하다. 이서의 말처럼, 김생은 왕희지와는 다르다. 유려의 제1인자인 왕희지에게는 볼 수 없는 강인함과 견고함을 김생의 글씨에서는 일반인도 쉽게 느낄 수 있으니, 이렇듯 김생은 왕희지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sup>2)</sup>

나의 논의는 김생의 글씨가 왕희지보다 좀더 활력 있고 기개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이해의 단초는 서예이론가였던 옥동 이서에 의해 제기되었다.

옥동 이서는 성호 이익의 중형이다. 그는 『필결』이라는 책을 남겨 한국서예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그의 김생에 대한 평가는 왕희지와 현지 부자와 관련되어 유비되고 있다. 왕희지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래와 같다.

아버지 왕희지가 술을 한 잔 먹고 글씨를 써놓고 지나갔는데, 아들 현지가 지나가다 보고 이건 아니라 싶어 자신의 글씨로 바꾸어 놓았다. 얼마 후 왕희지가 맨 정신에 보고 나서, 그 때 내가 술에 많이 취했구나하고 격하했다는 것이다.<sup>3)</sup>

사실상 여러 서예사를 통해 볼 때, 왕희지의 글씨도 대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희지가 상당히 여

1) 정세근 외, 『충북의 문학과 예술』, 충북학연구소/ 충청북도, 1999.

2) 위의 책.

3) 孫過庭, 『書譜』.

성스러웠던 반면, 현지는 남성적인 기세를 갖추었던 것이다. 그런 점 때문에 현지가 희지보다도 더 좋게 평가되기도 했다. 그러나, 주자학적 이념이 완전하게 자리를 잡은 송대 이후의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보다 아들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현지(獻之)는 희지(羲之)의 아들로 아버지의 글을 좀 더 기개있게 표현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서예사는 현지보다는 희지를 좀 더 좋게 표현하는 데 인색하다. 그 까닭은 유교적 강상(綱常) 윤리의 하나로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다는 사실은 불경스럽게 느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인지, 이서는 김생이 현지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전하고 있다.

이서는 『필결』에서 김생이 왕희지의 아들 현지처럼 지나친 데[僻/詭]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도를 지키지 못하고 강조가 심하는 점에서 편벽하다고 말한 것이며, 단정하지 못하고 규범을 일탈했다는 점에서 괴이하다고 말한 것이다.

과연 이서의 평가가 옳은가? 이는 좀 더 토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발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서조차 김생이 역사 속에서는 제일(第一)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 두 상반될 수 있는 평가 속에서 우리는 이서의 김생에 대한 칭송을 만난다. 왕희지를 능가한다고 표현할 수 없었지만, 반면 그는 제일의 서예가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 3. 금석학과 서예사

우리는 김생에 대한 여러 평가의 정당성을 서예사의 관점에서 다시금 검토할 필요를 느낀다.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좀 더 자유롭게 김생과 만나볼 수 있는 것이다. 청대(清代) 금석학(金石學)의 발흥과 연관되어 비교해보자.

금석학의 유행은 실로 단순한 논리에서 출발했다. 진본에 가까운 것이야말로 훌륭하다는 지극히 당연한 전제였다. 그것이 바로 ‘비첩’(碑帖)론이다. 처음으로 비와 첩을 구별하여 그것의 가치를 정리한 것은 청대 완원(阮元)이었다. 그는 종이에 쓴 서첩은 반복된 모사로 원본의 의미가 상실된 반면, 비문은 단 한 번의 모각만이 있었기 때문에, 서예가의 원의가 충실히 남아있음에 주목했다.

아무리 훌륭한 글씨라 할지라도 계속된 모사과정은 그것의 완전함을 상실시킬 것이다. 모사가 원본의 훌륭함을 유지시킬 수 없음은 실로 당연한 일이다. 이른바 ‘진적’이라고 떠도는 많은 글들도 정말로 진적(original)인지, 원본에 대한 2차인지, 아니면 2차에 대한 또 다른 2차인지에 따라 그 위상은 현격하게 달라질 수 있다. 진적을 아래에 두고 바로 베끼는 경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베낀 것을 또 다시 베낀 것이라면 문제가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돌에 새긴 것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 비록 종이나 비단에 쓴 것을 돌에 옮기는 한 차례의 모각과정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후는 탁본(拓本)이라는 형태로 대량복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를테면, 현대의 판화와 같은 지위를 석각은 지닌다. 따라서 판화로 나온 다량의 작품이 비교적 동일한 가치로 취급되는 것처럼 석각은 서예가의 원의를 그런대로 잃어버리고 있지 않다고 보아도 좋은 것이다.

완원이 주목한 것이 바로 이것이고,<sup>4)</sup> 청대의 금석학자들은 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흡수했다. 이를테면, 왕희지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진적이 남아있지 않아 최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다시 말해, 종으로 옮겨진 글씨는 반복된 모사과정 때문에 진필의 기운이 사라졌지만(종이의 수명과도 관련되어), 돌에 새겨진 글씨는 단 한 번의 모각이었기 때문에 원작의 의미가 살아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주장을 내세운 완원은 이후 청대 금석학의 대부격이 된다. 청대 금석학의 발흥은 전적으

4) 阮元, 『北碑南帖論』 및 『南北書派論』.

로 완원의 이러한 관점의 전환으로 비롯되었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다. 청나라 때의 옹방강(翁方剛)을 위시하여 많은 당시의 학자들이 학과는 달랐지만 완원의 주장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했다. 이로부터 그들은 종이를 버리고 돌을 찾아 나서게 된다. 금석학의 유행은 바로 이러한 서예사의 중대한 변화에서 출발한다.

사실상 우리 나라의 김정희에게도 완원과 옹방강의 영향은 매우 컸다. 김정희가 자신의 호를 완당(阮堂)이라 한 것은 바로 ‘완원’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게다가, 거의 서체는 일정부분 옹방강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김정희의 전집에도 포함되어있지만, 사실상 완원의 저작인 경우도 발견된다. 최근의 번역에도 이러한 실수는 거듭되었다.<sup>5)</sup> 김정희는 완원의 「북비남첩론」(北碑南帖論)의 한국적 선양자였다.<sup>6)</sup> 김정희가 진홍왕 순수비를 찾아낸 것도 이러한 금석문의 발굴에 대한 의지와 연관된 것이다.

‘첩에 대한 비의 우위’를 내세운 주장은 완원의 원론적인 제창 이후, 포세신(包世臣)과 강유위(康有爲)가 그 뒤를 잇는다. 포세신은 『예주쌍집』(藝舟雙楫)을 통해,<sup>7)</sup> 강유위는 그것의 속편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사실상은 완전한 독립저작인 『광예주쌍집』(廣藝舟雙楫)에서 청대 금석학적 주장을 흡수한다.<sup>8)</sup> 그것이 바로 존비(尊碑)론<sup>9)</sup>이다.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포세신의 『예주쌍집』을 ‘넓힌다’(廣)는 뜻으로 강유위가 책을 쓴 것이다.<sup>10)</sup>

청말의 대표적인 서예가로 추앙받는 인물이 등석여(鄧石如)인데, 그가 바로 금석학에 기초를 두고 글씨를 쓴 사람이었다. 이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미치고 있어, 현대의 서체는 북비(北碑)에 근거를 둔 글씨가 압도적으로 많다. 현대 중국도 마찬가지이며,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북비는 남첩(南帖)과는 확연히 다르게, 글씨에서의 힘을 우리들에게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애호되는 것이다.

남 첩	북 비
여성적인 아름다움에 치중	남성적인 힘을 강조
부드러운 원필(圓筆)이 많음	모난 방필(方筆)이 많음
세련된 맛이 있음	다듬어지지 않음
한산함	무밀(茂密)함
형식을 준수	때로 과격적임
문인의 기질	무인의 기질
왕희지, 조맹부 등	명가보다는 비문(<張猛龍淸頌碑> 등)
당나라 이후	수나라 이전
과거	현재

5) 1998년에 완역된 吳世昌, 『權域書畫徵』의 김정희 부분(『阮堂集』)의 일경문장이 阮元, 「南北書派論」의 도입부이다. 吳世昌, 『權域書畫徵』은 한국정신문화원본 참조.

6) 阮元, 『南北書派論』/ 『北碑南帖論』. 中田勇次郎 編, 『中國書論大系』(東京: 二玄社, 1983), 第15卷·淸5.

7) 包世臣, 『藝舟雙楫』.

8) 康有爲, 『廣藝舟雙楫』.

9) 위의 책 제2장의 편명이 곧 「尊碑」이다.

10) 그러나 재미있게도, 포세신이 말하는 ‘두 노로 젓는 배’(雙楫)는 문학과 서예 두 방면에 걸친 것이었지만, 강유위의 것은 서예만 다루었기 때문에, 어의상으로만 볼 때 그 표현은 타당하지 않다.

#### 4. 김생사지

김생사지는 현재 전혀 복원되지 않았다. 김생사 뿐만 아니라, 김생사지도 개인의 발로 쓰인다. 발 위에 덩그러니 김생사지 유허비만이 세워졌을 뿐이다.

김생사지는 탄금대 건너편에 자리한다. 충주에서 목행대교를 건너 좌회전(19번 국도 원주/서울 쪽)하면, 금가면 유승리 반송부락 정거장이 나오는데, 그 건너편 쪽에 있다. 다리는 달래강을 건너는 것이고 건너면 왼쪽 강편쪽에 김생사지가 위치해 있다. 건물을 관리소로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소유의 주택이다. 때로 여름에는 옥수수 대공 때문에 비조차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오래되어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은 절터 위에 집자비가 세워져 있는 것이다.

집자비는 김생의 글씨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단적으로 말해, 그 집자비는 한국서예사의 도로원점(道路原點)이다. 한국서예사의 모든 길은 우선 김생에게 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집자비가 가능했던 것은 다행히도 고려초 화상 단목(端目)에 의해 이미 비의 형태로 집자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954년에 세워진 <낭공대사백월서운탑비>(朗空大師白月栖雲塔碑)가 그것으로, 우리는 이를 통해 김생을 이름만이 아닌 작품으로도 만나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밖에도 화엄사 석경편으로 남아있다.

김생사지 외에도 일반인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충주실내체육관 앞에도 집자비가 있다. 그곳에는 ‘서성(書聖) 김생 선생 숭모비(崇慕碑)’라는 제목으로 대중들에게 김생의 글씨가 소개되어 있다.

충주가 김생이라는 인물을 지역의 역사와 문화로 편입시킨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신라승 김생은 충주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생과 관련된 유적지는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인물을 끌어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것을 이른바 문화상품화하는 데는 아직 미숙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김생사지를 찾는다는 것조차 안내인이 없으면 매우 힘든 일이며, 찾아도 행하니 집자비 하나만 서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변은 정리되어 있지 않고, 사유지라서 집자비까지 이르는 길도 분명하지 않아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오히려 주택에 난 도로를 따라 돌아서 들어가는 편이 나올 정도이다. 게다가, 유허지에서는 적지 않은 유물들이 나온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을 보관하거나 정리할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충청북도에서도 테마기행의 책자를 내면서, ‘신필(神筆) 김생’으로 그의 유적을 소개하고 있지만, 실로 초라하기 짝이 없다.<sup>11)</sup>

#### 5. 오류의 문제

문제는 더욱이 집자비에 나온 김생에 대한 설명이 아주 단순한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집자비에는 옥동 이서의 말을 빌어오면서,

“원교 이광사는 필결에서 동국필법은 신라 김생으로 종을 삼는다고 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광사의 책은 『서결』(書訣)이지 결코 『필결』(筆訣)이 아니다. 『필결』은 이익이 중형인 옥동 이서의 책이다. 인용된 부분과 상관된 문장도 이광사의 『서결』에서 나온다.

11) 『짧은 만남 긴 여운-전설따라 800리』, 충청북도, 2002.

“우리 나라의 필법은 신라의 김생으로 조종을 삼으나,”(東國筆法, 以新羅金生爲宗)<sup>12)</sup>

이와 같이, 집자비문의 설명에 나오는 인물의 그 책도 『서결』이며, 인용된 문장도 『서결』이다. 따라서 이는 완전한 오류이다. 집자비문 뒷편의 해제 12번째 줄에 나온다.

그 원인은 단순한 착오일 가능성이 가장 많다. 다만 설명을 붙이자면, 이서의 『필결』과 이광사의 『서결』이 우선 제목이 매우 유사하고, 번역도 원문과 더불어 함께 출판되었기 때문에 더욱 혼란을 가중시켰을 수 있다. 그 책은 재밋게도 『서예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두 번역을 함께 싣고 있기 때문이다.<sup>13)</sup> 두 책이 한 권에 실리는 바람에 오해를 쉽게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해제는 간송미술관장 최완수 선생에 의해 지어졌다.

위에서 말했듯이, 돌에 새겨진 것은 오래 남는다. 게다가 이른바 금석으로 남긴 것이라서 후학들의 오독이 심각히 우려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로 나는 이미 이런 김생 집자비의 단순한 오류를 시청 문화재관리과에 지적한 바 있지만(부록 참조), 이후 어떤 회답을 받은 적은 없음을 밝힌다.

덧붙혀, 옥동(玉洞) 이서는 이광사에게 왕희지의 <낙의론>을 보여준 사람이다. 따라서 시대가 매우 흡사한 것은 사실이며, 직접적으로 면대하기도 한 것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책은 다르다.

## 6. 한국의 서예

우리는 집자비를 통해 김생의 필력을 느낄 수 있다. 왕희지와 다른 김생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왕희지가 상당히 유려하다면, 김생은 화려함이나 세련됨에 구속받지 않고 무애한 필법으로 자유자재로 필력을 조정한다. 왕희지와는 다른 손맛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북비론에 의거한다면, 왕희지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왕희지가 필법을 익혔다는 ‘위부인’(衛夫人: 위항의 조카딸인 위삭)만 하더라도 여성의 장점을 살리고 있는 서체일 가능성이 많음을 인정한다면, 왕희지 서체가 힘보다는 아름다움에 치중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알다시피, 청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서예사 속에서 왕희지에 대한 평가가 급격히 달라진다. 그것은 바로 왕희지 서체의 연약함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 나라의 이서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왕희지에 최고 명필의 자리를 부여한다. 그는 『필결』에서, “중요(鍾繇)는 질박하고, 왕헌지는 화려하고, 김생은 괴벽하고, 당태종은 부박하니, 오직 왕희지가 중도를 터득했다”(鍾繇, 質; 獻之, 文; 金生, 僻; 唐太宗, 浮, 惟羲之, 得中)<sup>14)</sup>고 말한다. 이서의 평가는 초서에서도 마찬가지로여서, 김생은 왕헌지나 안진경처럼 ‘어긋났다’(詭)고 평가하여 위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생에게 주어진 편벽(偏僻)과 궤위(詭僞)라는 평가는 옳은가? 그것은 이미 추사 김정희에 의해 깨진 바 있다. 왕희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추사체야말로 치우치고 찌그러진 것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기개와 개성을 강조하는 시각에서는 김생이 왕희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일 수 있는 것이다.

지나친 추론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김생이 왕희지의 진적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왕희지의 글씨는 계속된 모사로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었지만, 김생은 왕희지의 원의를 잃지 않았고 그것이 954년의 <낭공대사백월서운탑비>(朗空大師白月栖雲塔碑)으로 남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사실, 이서도 우리 나라의 영업(靈業), 탄연(坦然), 선탄(禪坦), 안유(安裕) 등의 명필을 평가하면

12) 李匡師, 『書訣』, 後篇, 123쪽. 원문 146쪽.

13) 이종찬 편역, 『서예란 무엇인가』 (서울: 이화문화, 1998).

14) 李淑, 『筆訣』, 正字行書法.

서도 김생을 제일로 치고 있다. 이서가 보기에 김생, 영업, 탄연, 선탄은 왕희지로부터 배운 것으로, 안유는 진체(晉體)와 촉체(蜀體)가 섞인 것으로 보는데, 그 가운데 김생이 제일(金生爲第一)이라는 것이다. 왕희지를 이상으로 삼는 그에게 김생의 필체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김생은 한국서예사의 초석이다.

<참고문헌>

李 激, 『筆訣』

李匡師, 『書訣』

唐 孫過庭, 『書譜』 (朱建新, 孫過庭書譜箋證, 臺北: 華正)

清 劉熙載, 『藝概』, 臺北: 華正, 1985

清 包世臣, 『藝舟雙楫』, 臺北: 華正, 1985

清 康有爲, 『廣藝舟雙楫』 (龔鵬程, 臺北: 大鴻, 1986)

楊素芳, 后東生, 『中國書法理論』, 石家莊: 河北人民, 1998

김생 연구회, 『서성 김생 학술발표회 논문집』, 충주시, 1998

곽로봉 선역, 『중국서예논문집』, 서울: 동문선, 1996

김기승, 『한국서예사』, 서울: 정음, 1975

김병기, 『서예란 어떤 예술인가』, 서울: 미술문화원, 1992

김수천, 『서예문화사』, 익산: 원광대, 1998

김응현, 『동방서예강좌』, 서울: 동방연서회, 1985

박병천, 『서법론연구』, 서울: 일지, 1985

이종찬 편역, 『서예란 무엇인가』, 서울: 이화, 1998

정연승, 정세근, 『충북의 문학과 예술』, 청주: 충청북도, 1999

정충락, 『서형태미비교연구』, 서울: 미술문화원, 1987

정태희, 『중국서예의 이해』, 익산: 원광대, 1996

최순타, 『추사 김정희의 서화』, 익산: 원광대, 1994

최완수, 『추사명품첩별집』, 서울: 지식산업사, 1976(비매품, 선장본)

\_\_\_\_\_, 『김추사연구초』, 서울: 지식산업사, 1976(비매품, 선장본)

최정균 외, 『서예술논문집』, 익산: 원광대, 1994

釋廣元, 『中國書法概述』, 臺北: 商務, 1983

王壯爲, 『書法研究』, 臺北: 商務, 1982

趙英山, 『書法新義』, 臺北: 商務, 1983

史紫忱, 『書法史論』, 臺北: 中國文化大學, 1982

\_\_\_\_\_, 『書法今鑒』, 臺北: 中國文化大學, 1983

대구서학회, 『서학논집』, 제1-10집, 대구: 중문출판사, 1992-2001

今道友信, 『東洋の美學』, 東京: TBS Britannica, 1980

<부록>

이 복 진 계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충주에서 베풀어 주신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날은 더웠지만 맑아 사진은 아주 잘 나왔더군요.

다름이 아니오라, 그 날 찾아갔던 <김생사 유허 기념 집자비 건립 연기문>에 너무도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 있어서 바로 잡고자 함입니다.

그 글은 간송미술관을 이끄는 최완수씨의 것으로 그의 학력은 의심할 나위 없이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12번 째 줄에,

**“원교 이광사는 필결에서 동국필법은 신라 김생으로 종을 삼는다고 하였으며”**(한자를 한글로 표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필결』이라는 책은 성호 이익의 중형인 옥동 이서(李澈)의 책입니다.

전남 고흥 대둔사(‘대흥사’라고 많이 불립니다)의 현판 ‘대웅보전大雄寶殿’(추사 김정희가 제주도도 귀양을 가면서 저게 무슨 글씨냐며 떼라고 했다가 귀양을 마치고 오면서 자신의 경솔함을 후회하고 다시 붙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함)을 쓴 조선말 명필이 이광사인데, 그의 책은 『서결』(전후 2편, 후편은 또 다시 상하 2편으로 나뉘)입니다. 이광사는 이서보다 마흔 넘게 어린데, 그의 책에서 이서의 집에서 왕희지의 글씨를 보았다고 적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완수씨의 글의 내용은 맞으나, 책의 이름이 틀립니다.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앞으로 나올 책의 관계 부분으로, 저의 글입니다.

(중략) 조선말의 명필인 원교 이광사도 『서결』(書訣: 1986년에 세운 김생사유허비에서 ‘『筆訣』’이라 함은 잘못된 것이며, 그 글은 이익의 형인 이서의 책이다)에서 동국필체는 김생을 아버지(宗)로 하는데, 오늘날 진적이 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광사에게 왕희지의 <낙의론>을 보여주기도 했던 옥동 이서는 『필결』에서 비록 김생이

왕희지의 아들 헌지처럼 지나친 데가 있다(僻/詭)고 낮추어보지만 역사 속에서는 제일(第一)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관련 자료를 동봉합니다.

문화재에 이런 일이 하나 둘이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최완수씨조차도 이런 실수를 범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친절에 다시 한 번 감사 올리며, 아무쪼록 건강을 빕니다.

충북대 철학과

정 세 근 올림

0431-261-2146

1997.3.4.화.10.30(파일저장일)